머리말

한 나라의 실물경제를 기계장치에 비유할 때 금융은 그 기계장치의 원활한 작동을 가능하게 하는 윤활유에 비유되곤 합니다. 한동안 우리경제는 윤활유의 기능이 정지된 심각한 금융경색기를 경험했으며, 이를 두고 "하드웨어는 그래도 586급인데 소프트웨어는 아직도 도스프로그램을 쓰고 있는 형국"이라는 표현까지도 동원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표현에는 소프트웨어 빈약으로는 더 이상 성장을 담보할 수 없는 지식경제에서는 금융 소프트웨어의 개혁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런 까닭에 최근 금융권의 관심은 금융산업의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하면 향상시키느냐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개별 보험사들은 일찍부터 전사적 자원관리와 리스크관리, 합리적 성과체제 구축 등 지속적인 내부개혁을 시행해 오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보험산업 전체차원에서 금융소프트웨어 개혁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의 바람은 비단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상황은 아닙니다. 오늘날 국제사회는 상호간 연계성이 강화되면서 국제사회의 소프트웨어에 해당하는 국제기준이 과거의 명목적 기준에서 실질적 기준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기업을 투자자 및 소비자와 연계해주는 의사소통수단인 회계정보의 생산기준, 실제로 회계정보를 생산하는 주체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기업지배구조, 정보이용자에게 제공될 회계정보를 검증하는 데에 필요한 감사기준, 그리고 금융감독기준 등 세계공통의 국제기준들을 제정하기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촌 곳곳에서 열띤 토론과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원에서도 국내 금융소프트웨어의 개선 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으며, 보험 및 금융관련 국제기준의 주요 경향을 분